

혈액 투석 환자에서 발생한 허리동맥의 자발성 출혈 1예

부산대학교 의학대학원 내과학교실

박진현 · 양병윤 · 송상헌 · 이동원 · 이수봉 · 광임수

Spontaneous Rupture of Lumbar Artery in a Hemodialysis Patient

Jin Hyeon Pak, Byung Yun Yang, Sang Heon Song, Dongwon Lee, Soo Bong Lee, IhmSoo Kwak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서 론 : 허리동맥의 파열은 대개 골반이나 요추의 외상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예들이 많으나,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하는 경우 드물게 자발성으로 출혈하는 경우가 있다. 저자들은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특별한 외상의 병력 없이 갑자기 허리동맥이 파열된 이후 혈중 부위에 이차적으로 농양이 발생한 환자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 43세 남자로 제 2형 당뇨병으로 인한 만성 신부전으로 5년전부터 좌측 상완의 동정맥루를 통해 유지 혈액 투석을 시행하는 환자였다. 40도 이상의 고열과 의식저하를 주소로 응급실로 내원 하였고 저혈압 및 저산소혈증 소견 보여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진단하고 항생제 투여 및 기계호흡을 시작하였다. 또한 항문 주위에 농양이 있던 환자인데 계속 악화되어 포니에르 괴저로 진행된 상태였다. 환자는 내과 중환자실로 입원 하였고 기계호흡과 항생제 유지하면서 비뇨기과에서 포니에르 괴저에 대한 수술도 시행 하였다. 이후로 환자는 점차 경과가 호전 되었고 기계호흡 이탈도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입원 후 2개월 째 갑자기 혈압 저하 되며 의식 처지는 양상 보였고 혈액검사에서 혈색소가 4.5 g/dL로 감소된 소견 보였다. 환자의 복부가 이전보다 많이 팽만되는 소견 보여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일단 복강내 출혈을 의심하였다. 복부 및 골반 전산화단층촬영을 하였고 후복강과 골반내 출혈이 관찰되었다. 동맥조영술을 시행 하였고 허리동맥 2군데에서 출혈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어 색전술을 시행하였다. 색전술 시행 후로는 수혈하지 않고도 혈색소가 더 이상 감소되지 않았으며 전반적 경과도 호전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색전술 시행 후 1개월 째 폐렴과 포니에르 괴저가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지속적인 발열을 보였다. 다시 복부 및 골반 전산화단층촬영을 하였고 이전에 혈종이 발생하였던 부위로 농양 형성이 의심되었다. 환자의 전신상태가 불량하여 후복강 및 골반의 농양에 대한 배액술을 시행하였다. 배액술 후 환자는 일시적 호전을 보였으나 이후 농양이 악화되며 배액이 잘 되지 않아 추가로 시술을 시행하여 보았지만 지속적 악화 양상 보여 결국 사망하였다.

결 론 : 만성신부전에서는 혈소판의 수나 기능 이상이 동반되고 비정상적으로 출혈시간이 연장되어 있으며 투석시 사용하는 헤파린 등에 의하여 잠재적으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급격한 혈액동학적 변화나 혈색소의 감소를 보이는 경우 혈관의 자발성 출혈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출혈 이후 이차적으로 농양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